

# 고용동향 브리프

2020

Vol.4

## 01

주요 고용이슈 심층 분석

속련수준별 고용 변동 분석:

코로나19 위기를 중심으로

## 02

통계포커스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특징



# 숙련수준별 고용 변동 분석: 코로나19 위기를 중심으로

정한나\*

## 01 개요

- 본고는 경제활동인구조사 2017~2020년 5월 월별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은행(2018), Tüzemen(2018)등의 분류에 따른 숙련 수준별 취업자 동향을 분석
- 숙련노동이란 비정형적 인지(認知)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일컫는 것으로 기업은 숙련근로자로부터 더 큰 이윤을 얻기 때문에 근로자의 숙련수준을 높이거나 숙련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인센티브를 가짐(Acemoglu and Autor, 2011)
- 최근 중간숙련 근로자의 수요는 줄고 고숙련 및 저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일자리 양극화(job polarisation)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짐(한국은행, 2018, Tüzemen, 2018)
  - 기술진보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고숙련 근로자 수요가 늘는 한편, 경제의 서비스화 진행, 글로벌화에 따른 생산설비 이전 등 중숙련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현상
  - 이에 따라 해당 일자리에 근무하던 근로자 일부가 저숙련 일자리로 이동하거나 자신이 보유한 기술과의 미스매치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퇴장<sup>1)</sup>
- 이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발 경제위기로 `20년 5월 기준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9만 2천명 감소
  - 성, 연령대, 산업, 직업별 감소 폭은 기존 자료에서 분석이 되었으나 본 고에서는 숙련수준별 취업자 수 변화에 포커스를 맞추어 기존의 일자리 양극화 추세에서 코로나19발 고용위기가 숙련수준별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제언을 도출

\*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hnjung@keis.or.kr)

1) 한국 사례를 연구한 한국은행(2018)은 중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고, 해당 근로자의 일부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면서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저하되었음을 확인

## 02 숙련수준별 취업자 수 추이

### 2-1. 숙련수준별 취업자 구성과 추이

- 한국은행(2018), 김남주(2015), Tüzemen(2018)에 따르면 숙련수준은 고숙련, 중숙련, 저숙련으로 나누며 경제활동인구조조사상 직업을 고숙련(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숙련(사무 종사자, 기능원,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 저숙련(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으로 구분 (<표. 1>)<sup>2)</sup>

표 1 숙련수준 정의 기준

	저숙련	중숙련	고숙련
구분 기준	비정형적 육체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서비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및 판매 종사자를 포함 한국은행(2018) 분류 원용	정형적 인지업무 및 육체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무종사자, 기능원,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포함	비정형적 인지(認知)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포함
통계청의 표준직업분류 6·7차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종사자</li> <li>• 판매 종사자</li> <li>• 단순노무 종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 종사자</li> <li>• 기능원, 관련 기능 종사자</li> <li>• 장치,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자</li> <li>•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li> </ul>

[주 | 1) 통계청 표준직업분류는 2017년까지 6차, 그 이후로 7차 분류사용

- `20.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성, 연령대, 학력, 고용형태, 주요산업별 숙련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음
- 한국 노동시장에는 중숙련 근로자가 38.92%로 가장 많고 저숙련(37.92%), 고숙련(23.17%) 순으로 나타남. B-A 지표를 통해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모든 그룹에서 취업자 감소하였고 중숙련 비중이 감소
- 저숙련 취업자 비중이 높은 그룹은 청년층, 고령층, 고졸이하, 임시-일용직, 서비스업임
  - 성별로는 남성의 중숙련 취업자 비중이 47.87%, 여성은 저숙련 비중이 48.49%로 가장 높았으며 청년층(15~29세)은 저숙련 근로자 비중이 중숙련에 비해 약 7%p 더 높았고 핵심연령층(Prime age group, 30~54세)은 중숙련 규모가, 고령층(55세 이상)은 저숙련 규모가 월등히 큼<sup>3)</sup>
  - 고용형태별로는 상용직은 중숙련 취업자 비중이 높았고 임시-일용직은 저숙련 비중이 높음. 주요 산업별로는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은 중숙련, 서비스업은 저숙련 근로자 비중이 높음

2)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제외(한국은행, 2018)

3) 연령대 구분은 한국은행(2018)의 분류를 참고

표 2 숙련수준별 취업자 수 변화('19.5 vs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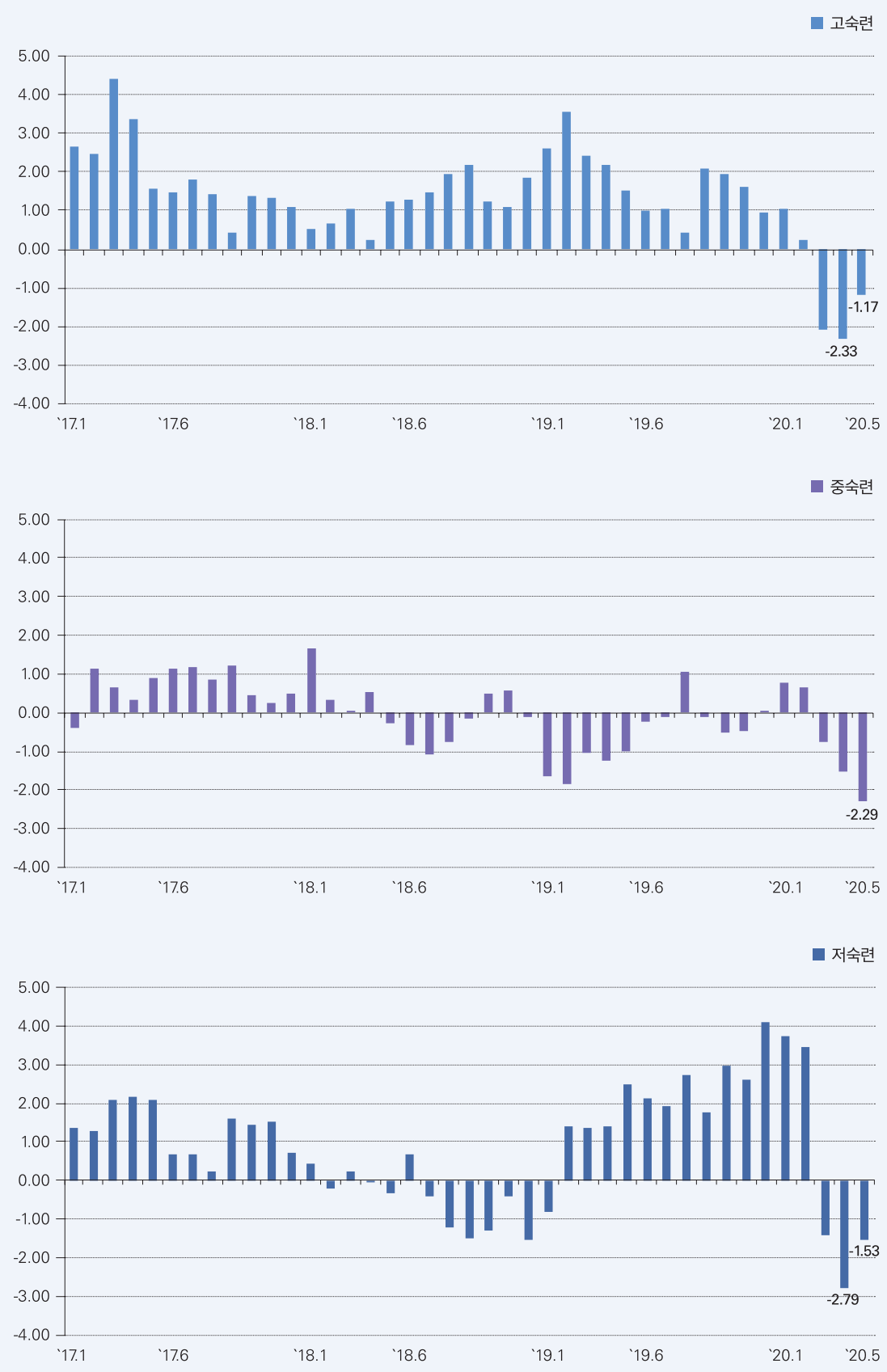
(단위: 천명, %)

		'19. 5.(A)			'20. 5(B)			B-A		
		고속련	중속련	저속련	고속련	중속련	저속련	고속련	중속련	저속련
전체	N	5,967	10,139	9,801	5,897	9,907	9,652	-70	-232	-150
		23.03	39.14	37.83	23.17	38.92	37.92	0.13	-0.22	0.08
성별	남성	3,185	7,139	4,363	3,219	6,936	4,335	33	-203	-28
		21.69	48.61	29.71	22.22	47.87	29.92	0.53	-0.74	0.21
	여성	2,781	3,000	5,438	2,678	2,971	5,317	-103	-29	-121
		24.79	26.74	48.47	24.42	27.09	48.49	-0.37	0.35	0.02
연령대별	청년층	1,083	1,337	1,508	1,033	1,223	1,481	-51	-114	-27
		27.58	34.03	38.38	27.63	32.74	39.63	0.05	-1.29	1.24
	핵심연령층	4,067	6,549	4,501	4,001	6,393	4,314	-67	-157	-187
		26.90	43.32	29.77	27.20	43.47	29.33	0.30	0.14	-0.44
	고령층	816	2,252	3,793	864	2,290	3,857	48	38	64
		11.90	32.83	55.28	12.32	32.67	55.01	0.42	-0.16	-0.27
학력별	고졸이하	1,828	6,852	8,188	1,676	6,618	8,030	-151	-234	-159
		10.84	40.62	48.54	10.27	40.54	49.19	-0.57	-0.08	0.64
	대졸이상	4,139	3,287	1,613	4,220	3,288	1,622	82	2	9
		45.79	36.36	17.85	46.22	36.01	17.76	0.43	-0.35	-0.08
고용 형태별	상용	4,229	6,973	2,835	4,349	6,925	3,154	121	-48	319
		30.13	49.67	20.20	30.14	48.00	21.86	0.02	-1.68	1.66
	임시-일용	706	1,430	4,250	581	896	2,945	-126	-534	-1,306
		11.06	22.39	66.55	13.13	20.26	66.60	2.08	-2.13	0.06
산업별	제조업	607	3,227	600	660	3,116	600	53	-111	0
		13.69	72.78	13.53	15.08	71.22	13.70	1.39	-1.56	0.17
	서비스업	5,080	5,311	8,630	4,973	5,233	8,436	-107	-78	-194
		26.71	27.92	45.37	26.67	28.07	45.25	-0.03	0.15	-0.12
	건설업	242	1,423	372	230	1,369	378	-13	-53	5
		11.89	69.84	18.27	11.62	69.28	19.10	-0.27	-0.56	0.83

[주] 1)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 `17.1~`20.5월 경찰 자료를 통해 숙련수준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추이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통계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주로 고속련, 저속련에서 취업자가 증가하고 중간숙련 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는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는 일자리 양극화(job polarisation) 양상이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런 경기위축으로 `20. 5월 수치에서 저속련 -1.53%, 고속련 -1.17% 감소하였고 중속련 근로자는 -2.29% 감소

그림 1 숙련수준별 취업자 수 추이(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7.1~'20.5)

## 2-2. 숙련수준별 취업자 수 추이: 특성별 분석

- 숙련수준별 취업자 수 추이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성별로는 여성의 취업자 수 변동 폭이 남성에 비해 크며 모든 숙련 수준에서 취업자 수 감소가 남성에 비해 컸음
  - `20.1월 이후 여성 고숙련 및 저숙련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여성취업자가 코로나 19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서비스업 종사 비중이 높기 때문이며 이는 고숙련 근로자에서도 마찬가지임
  - 남성 고숙련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제조업, 상용직 비중이 높음

그림 2 숙련수준별 취업자 수 추이(전년동월대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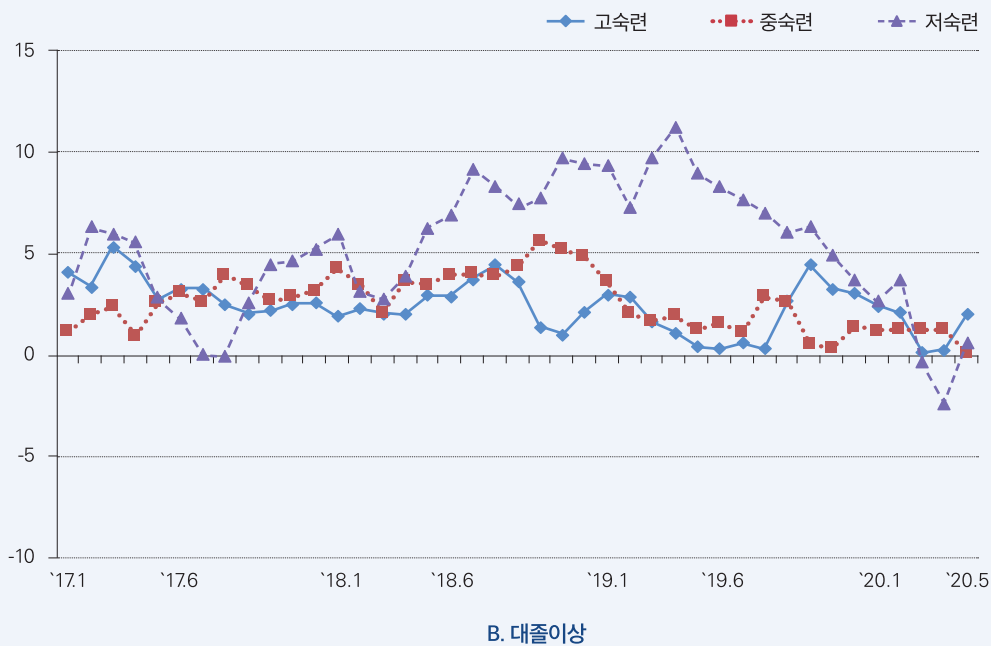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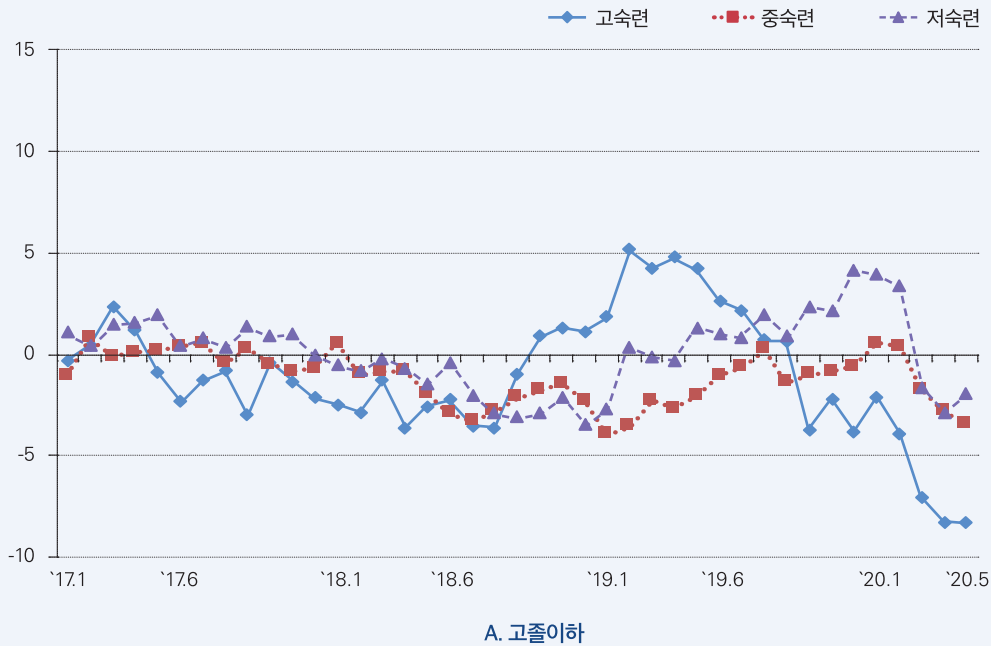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7.1~'20.5)

- 학력별로는 저학력 취업자 수 감소가 컸으며 특히 학력은 낮지만 숙련도는 높은 그룹에서의 취업자 감소 폭이 컸음
  - 이에 반해 대졸 이상 고속련 취업자 감소는 크지 않고 '20.5월 수치는 오히려 증가

그림 3 숙련수준별 취업자 수 추이(학력별, 전년동월대비)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7.1~'20.5)

-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일용직이 감소하고 상용직 중심의 취업이 이루어짐. 그 중에서도 상용-저속련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이 추이는 최근 3~5월간의 통계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음. 반면 임시-일용직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코로나19발 위기에 따른 취업자 수 감소 역시 크게 나타남
  - 상용직의 경우 갑작스런 위기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고용안정망 내에 있지만 임시-일용직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줌

그림 4 숙련수준별 취업자 수 추이(고용형태별, 전년동월대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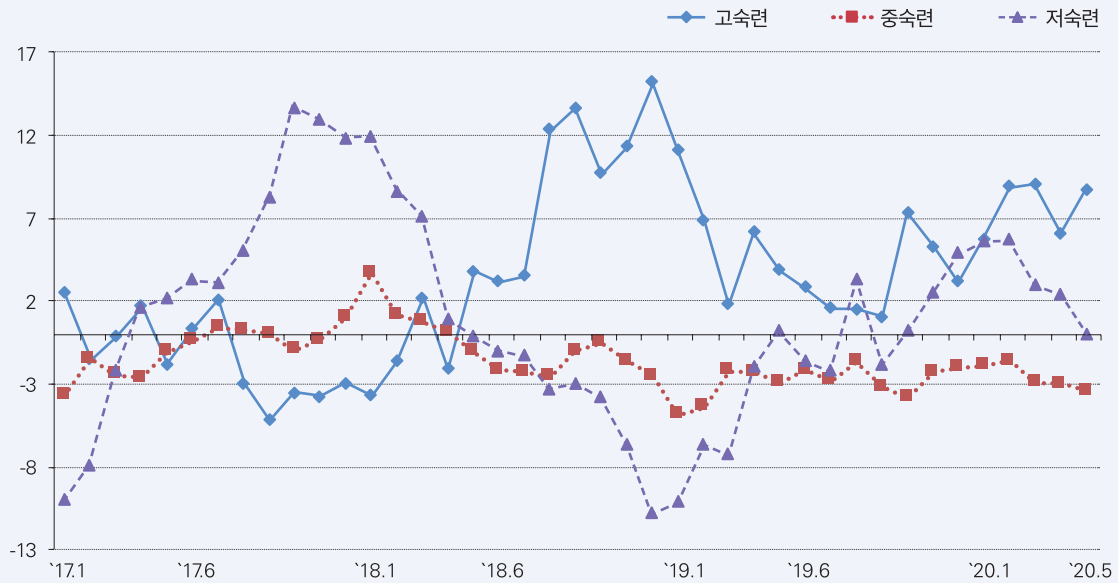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7.1~'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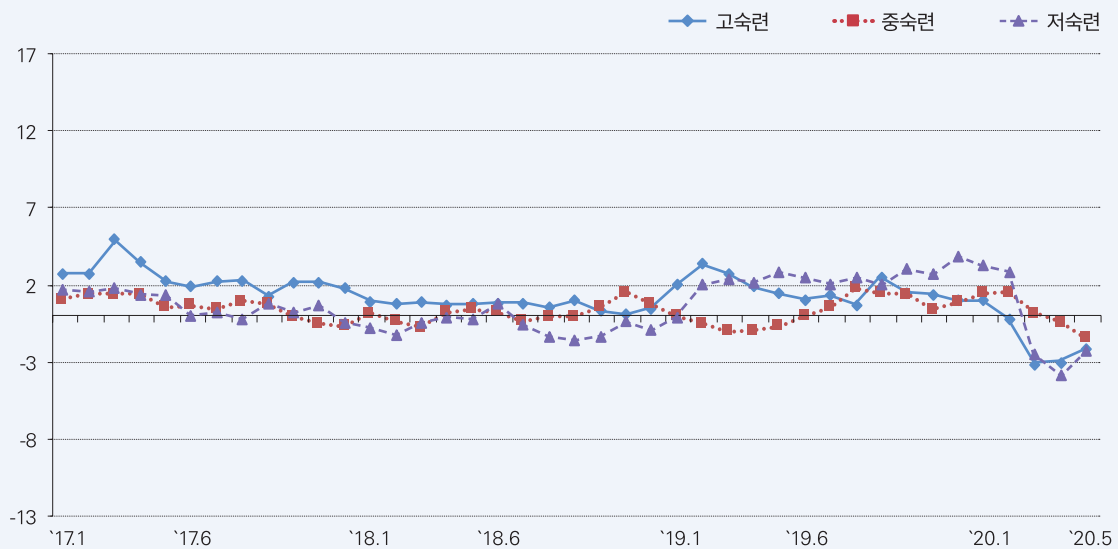
- 주요 업종별로는 제조업 중숙련 근로자가 지속감소하였고 고속련 근로자는 증가, 저숙련 근로자는 감소추세
  - '20.1월 이후 서비스업에서는 모든 숙련 수준에서 취업자 수 감소
  - 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장기화된다면 제조업 고용에서도 숙련수준에 상관없이 취업자 수 감소 추이가 확대될 수 있음

그림 5 숙련수준별 취업자 수 추이(업종별, 전년동월대비)

(단위: %)



A.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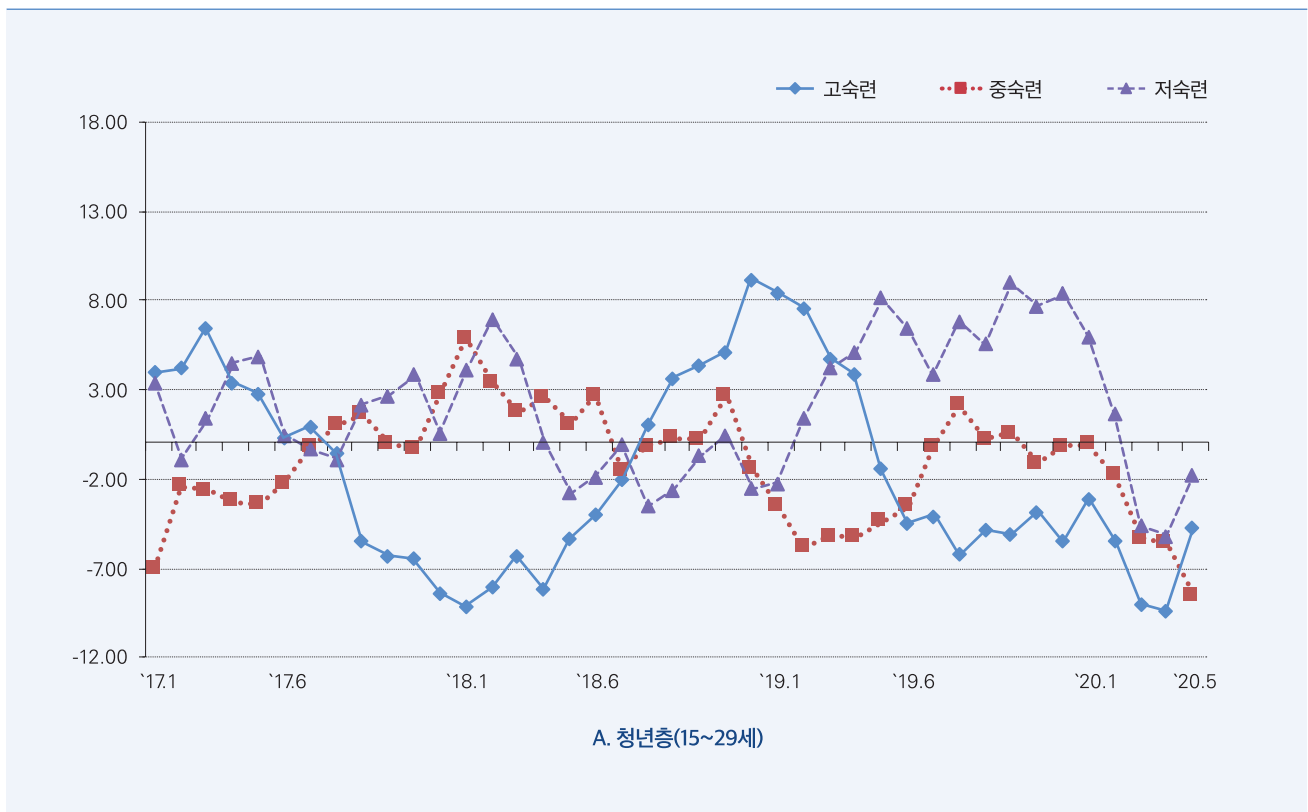
B. 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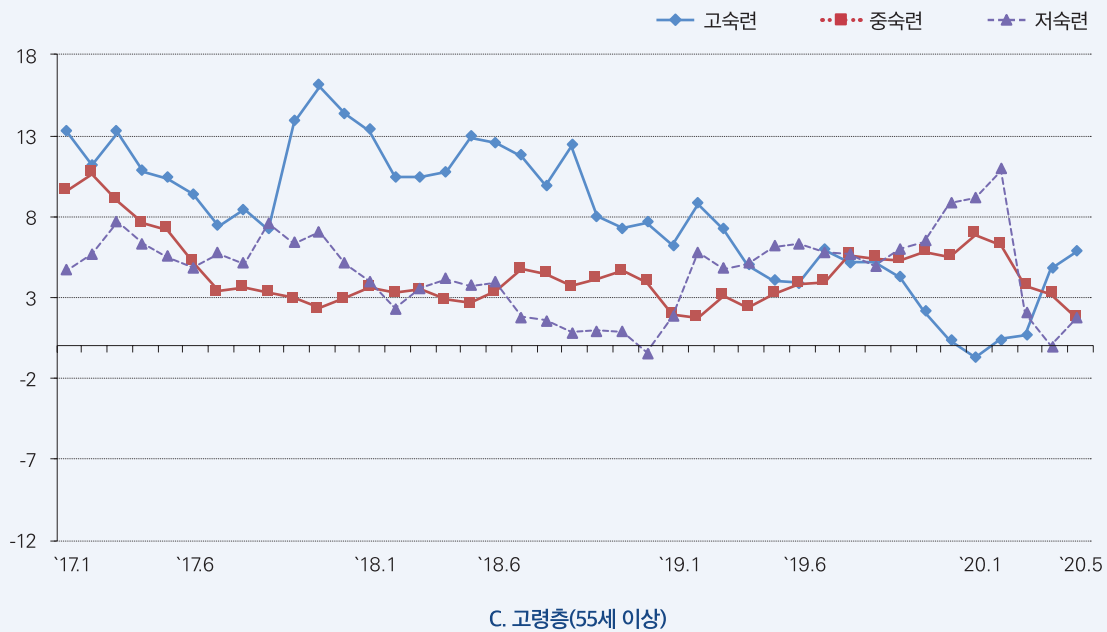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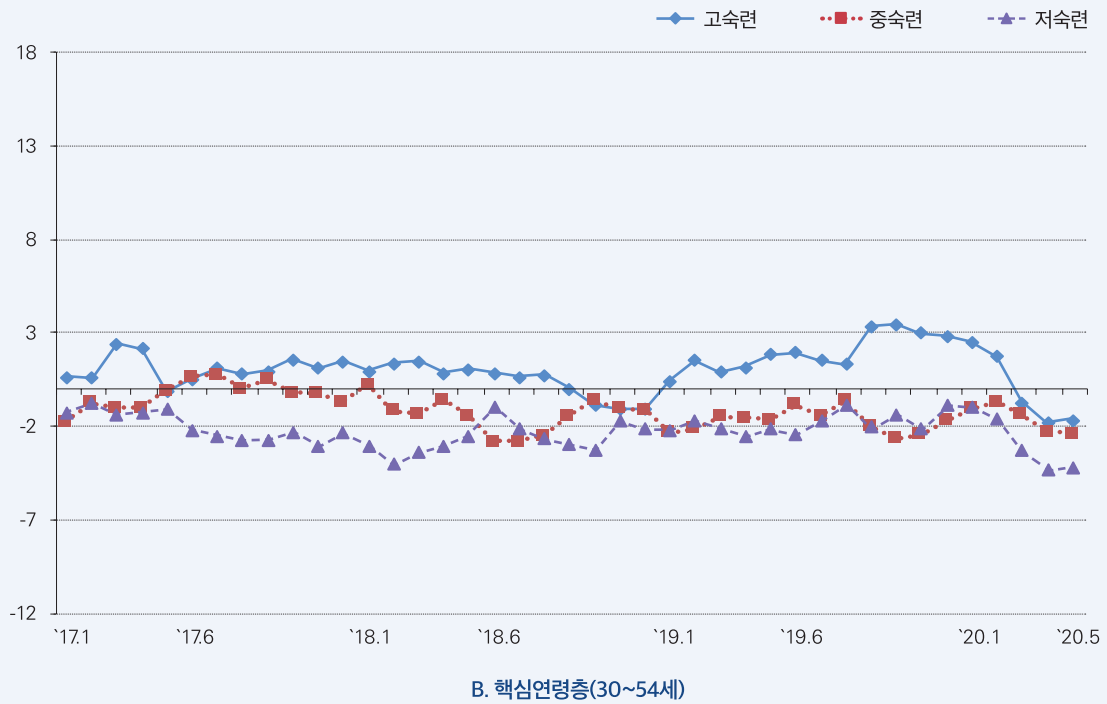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7.1~'20.5)

- 연령대별로는 15-29세 청년층과 고령층의 취업자 수 변동폭이 크며 상대적으로 핵심연령층 변동은 적음
  - 핵심연령층은 고속련 취업자를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중속련, 저속련 비중은 소폭 감소
- 최근 청년층은 모든 속련 수준의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급감. 반면 고령층은 저속련 및 중속련 근로자가 감소하였고 고속련 취업자는 오히려 증가
  - 청년 고속련 취업자는 지난 1년간 감소추세였으나 이번 코로나19 위기로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고 저속련 청년층의 취업자 역시 최근 급격히 감소
  - 55세 이상 고령층은 노동시장 참여 기간이 청년층에 비해 길어 속련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위기에도 노동시장에서 버티는 힘이 있으나 노동시장에 진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층은 갑작스런 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음

그림 6 속련수준별 취업자 수 추이(연령대별, 전년동월대비)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7.1~'20.5)

- 전반적으로 제조업, 남성, 핵심연령층, 상용, 대졸이상 그룹을 중심으로 최근 코로나19발 고용위기에 취업자 수 변동이 크지 않은 반면 서비스업, 여성, 청년, 임시-일용, 고졸이하에서 최근 취업자 수 감소가 크게 나타나 코로나19발 위기의 충격을 해당 취약계층에서 크게 받고 있음을 숙련수준별 취업자 수 추이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음

### 2-3. 숙련수준별 일시휴직자 수 변화

- 한편 최근의 코로나19발 고용위기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일시휴직자의 급격한 증가였음. <표. 3>은 숙련수준별 일시휴직자 수로 `20.5월 일시휴직자는 전년 동월대비 3배 이상 증가
  - `20.5월 일시휴직자 분포를 숙련수준별로 살펴보면 중숙련 일시 휴직자 비중이 높았던 `19.5월과 달리 `20.5월에는 저숙련자 비중이 크게 높아짐
  - 저숙련 취업자 중 코로나19발 고용위기로 일시휴직에 들어간 근로자가 많았음을 의미
-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고용 충격을 흡수하고는 있지만 경제 위기가 장기화 될 경우 일시휴직이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으며 그 대상이 노동시장 참여가 얼마되지 않은 청년층 혹은 숙련 수준이 낮은 그룹이 될 가능성이 높음

표 2 숙련수준별 취업자 수 변화(`19.5 vs `20.5)

(단위: 천명, %)

		`19. 5(A)			`20.5(B)			B-A		
		고속련	중숙련	저숙련	고속련	중숙련	저숙련	고속련	중숙련	저숙련
전체		109	141	76	277	331	403	168	190	327
		33.35	43.18	23.47	27.39	32.71	39.90	-5.96	-10.47	16.43
성별	남성	25	73	26	93	189	127	68	116	101
		20.28	58.73	21.00	22.79	46.15	31.05	2.51	-12.58	10.05
	여성	84	68	51	184	142	276	100	74	225
		41.33	33.69	24.98	30.51	23.59	45.90	-10.82	-10.1	20.92
연령대별	청년층	11	9	6	27	38	45	16	29	39
		44.30	33.56	22.14	24.57	34.36	41.07	-19.73	0.8	18.93
	핵심연령층	85	93	41	195	203	130	110	110	89
	39.04	42.36	18.60	36.99	38.41	24.59	-2.05	-3.95	5.99	
	고령층	12	40	30	55	90	229	43	50	199
		14.75	48.37	36.88	14.65	24.17	61.18	-0.1	-24.2	24.3
학력	고졸이하	28	78	65	84	223	352	56	145	287
		16.54	45.31	38.15	12.78	33.86	53.35	-3.76	-11.45	15.2
	대졸이상	80	63	11	193	107	52	113	44	41
		51.94	40.83	7.23	54.77	30.55	14.68	2.83	-10.28	7.45
고용형태별	상용	96	104	27	11	86	20	-85	-18	-7
		42.11	45.80	12.09	9.08	73.86	17.05	-33.03	28.06	4.96
	임시-일용	8	8	35	264	199	373	256	191	338
		15.17	15.60	69.23	31.60	23.84	44.56	16.43	8.24	-24.67
산업업	제조업	8	28	10	1	40	3	-7	12	-7
		16.96	60.81	22.23	2.45	90.59	6.96	-14.51	29.78	-15.27
	서비스업	97	85	65	123	219	103	26	134	38
	39.39	34.42	26.19	27.71	49.12	23.16	-11.68	14.7	-3.03	
	건설업	4	24	0	73	54	238	69	30	238
		12.88	87.12	0.00	19.85	14.89	65.26	6.97	-72.23	65.26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03 결론

- 전반적으로 코로나19발 고용위기에 따른 제조업, 남성, 핵심연령층, 상용, 대졸이상 그룹의 취업자 수 변동은 크지 않은 반면 서비스업, 여성, 청년, 임시-일용, 고졸이하의 취업자 수 감소는 크게 나타남
  - 갑작스러운 고용 충격을 취약계층에서 흡수하고 있었음을 숙련수준별 취업자 수 추이 분석에서도 확인
  - 하지만 최근 분석에 따르면 관리직, 금융업 등 일선 노동자에 비해 후행하는 관리직 구조조정이 현실화 될 것이라 있다는 우려 존재(Yelena Shulyatyeva, 2020)
- 제조업, 핵심연령층을 중심으로 중숙련 근로자가 감소하는 일자리 양극화 특징 지속
  - 40대를 비롯한 핵심연령층의 고용난은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로 기존의 설비, 기술 전환이 쉽지 않아 노동력에도 불균형이 생기는 구조적 실업에 가까웠음
  - 이는 한 쪽에서는 실업자가 속출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인력난이 병존하는 실업 형태임
- 한편 최근의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 위기는 갑작스런 대면 서비스의 어려움으로 생긴 수요 부족 실업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실업 위기는 감소하지만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이 늦어지고 위험이 장기화 된다면 또 다른 형태의 구조적 요인으로 노동시장에 작용하여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이 모두 감소하게 될 것임
  - 정부 지출확대, 확대금융정책, 근무 제도 변경 등으로 코로나19발 위기에 대응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구조적 위기, 즉 산업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인력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함
- 산업구조변화, 생산설비 이전 등에 따른 중숙련-제조업-핵심연령층에 대한 숙련도를 높이는 정책과 더불어 고용안정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이 모두 다루어져야 할 것임

## ☑ 참고문헌

김남주,

중숙련(middle-skill) 일자리의 감소가 고용 없는 경기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38(3), pp.53-95.

한국은행(2018),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 대한 평가: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을 중심으로, BOK이슈노트, 2018-9호.

Acemoglu, D., & Autor, D. (2011).

“Skills, tasks and technologies: Implications for employment and earnings”. In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 4, pp. 1043-1171.

Tüzemen, D.,

“Why are prime-age men vanishing from the labor force?,” Economic Review, pp.5-30, Q1 2018, FRB of Kansas City.

Yelena Shulyatyeva(2020),

A Second Wave of White-collar Job Layoffs is Coming, Bloomberg.

#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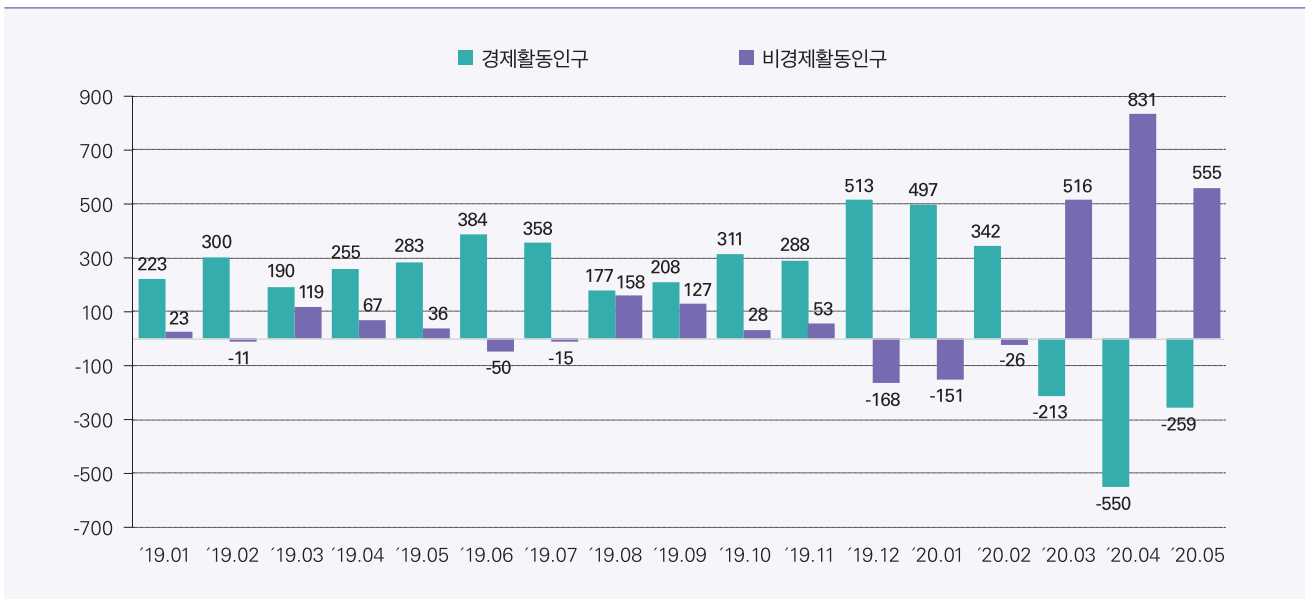
한수연\*

- » `20년 3월 이후 증가한 비경제활동인구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코로나19 국면에서의 노동시장 변화를 파악하고자 함
  -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수, 잠재구직자의 증감 추세를 확인하고, 성별·연령계층별·학력수준별 현황을 확인
- » 비경제활동인구는 `19년 12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3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3월 51만 6천명, 4월 83만 1천명, 5월 55만 5천명이 증가하여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됨
  - 같은 시기 경제활동인구는 `20년 3월 21만 3천명, 4월 55만명, 5월 25만 9천명이 감소하여 근래 이례적으로 축소되는 양상을 보임
- » `20년 5월은 4월보다 전년동월대비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이 27만 6천명 감소함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 연구원(hsy77@keis.or.kr)

그림 1 '19년 1월~'20년 5월 생산가능인구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월

표 1 '20년 5월 성별·연령계층별·활동별 비경제활동인구 현황

(단위: 천 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전체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육아	1	0	124	1	790	4	233	3	16	0	43	1	1207	9
	(0)	(0)	(-4)	(1)	(19)	(0)	(41)	(1)	(3)	(0)	(-9)	(-1)	(49)	(1)
가사	1	1	47	2	293	7	1054	23	1339	24	2996	85	5729	141
	(1)	(1)	(-14)	(-2)	(-32)	(1)	(4)	(8)	(67)	(-14)	(153)	(-1)	(179)	(-8)
통학	1064	1081	532	586	15	14	6	0	1	1	1	2	1619	1684
	(-77)	(-63)	(37)	(12)	(-1)	(0)	(1)	(-1)	(-2)	(0)	(-1)	(1)	(-44)	(-50)
취업준비	11	7	269	318	39	110	20	26	6	9	3	3	348	473
	(3)	(-4)	(30)	(39)	(-15)	(24)	(1)	(-5)	(-8)	(-1)	(-4)	(-3)	(7)	(49)
연로	0	0	0	0	0	0	0	0	0	0	931	1297	931	1297
	(0)	(0)	(0)	(0)	(0)	(0)	(0)	(0)	(0)	(0)	(17)	(37)	(17)	(37)
심신장애	0	2	12	32	22	25	16	40	31	56	77	133	158	288
	(0)	(-1)	(0)	(3)	(-4)	(-8)	(-1)	(0)	(4)	(2)	(6)	(18)	(5)	(14)
쉬었음	18	20	195	229	83	145	63	205	63	379	81	805	502	1784
	(0)	(9)	(40)	(65)	(28)	(16)	(20)	(32)	(-2)	(37)	(-3)	(82)	(82)	(241)
기타	23	63	35	67	9	14	12	19	17	21	56	41	151	226
	(7)	(11)	(-8)	(-30)	(-1)	(8)	(-8)	(5)	(-3)	(-3)	(4)	(-7)	(-8)	(-17)
전체	1117	1173	1212	1235	1250	319	1405	316	1473	490	4189	2368	10646	5902
	(-66)	(-48)	(81)	(89)	(-6)	(41)	(60)	(39)	(58)	(21)	(162)	(126)	(288)	(268)

| 주 | 1.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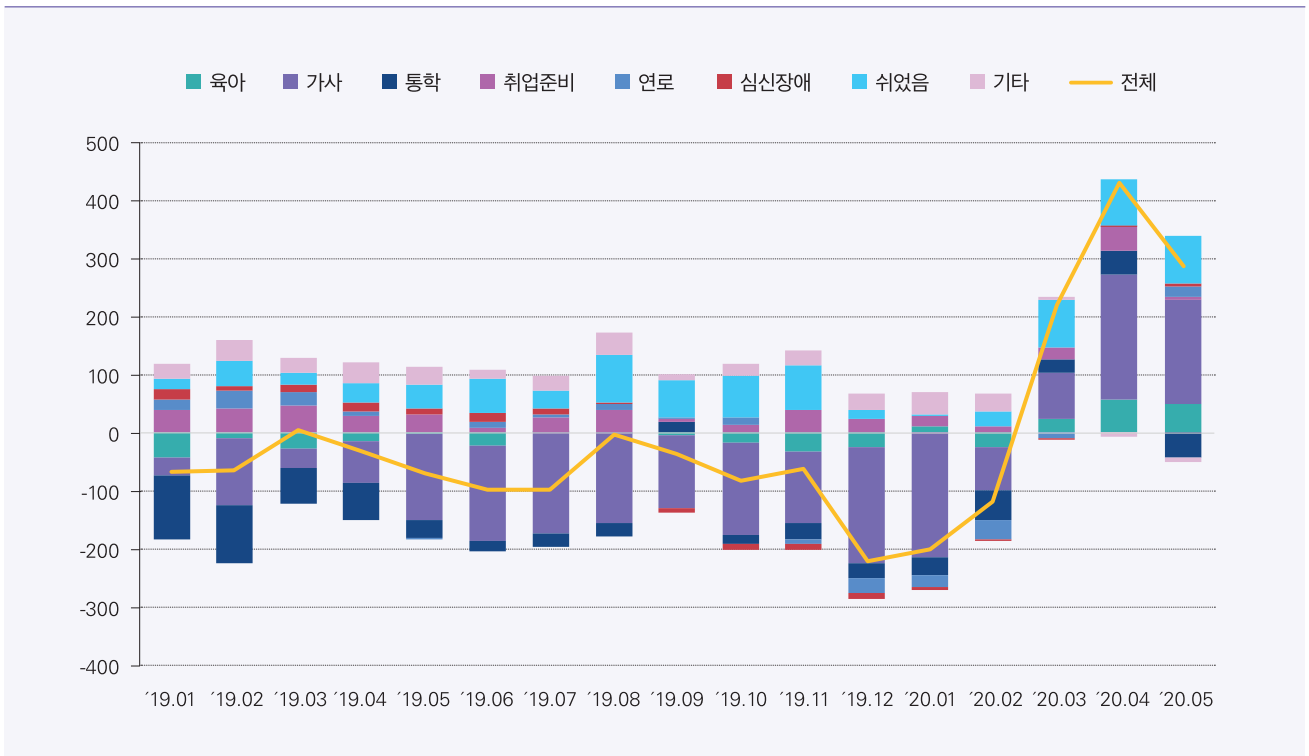
- 통학은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학원 통학을 포함
- 취업준비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학원·기관 수강 외 취업준비 포함
- 기타에는 진학준비, 군입대 대기를 포함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0년 5월

» `20년 5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55만 5천명이 늘어난 1654만 8천명이며 이 중 약 64.3%(1,064만 6천명)가 여성으로 파악됨

- 연령계층별로 보면 60세 이상과 20대를 중심으로 증가
- 활동별로 보면 ‘쉬었음(전체 증가폭의 58.2%)’과 ‘가사’가 크게 늘었으며, 60세 이상은 ‘가사’, 20대는 ‘쉬었음’ 인구가 가장 크게 증가

그림 2 `19년 1월~`20년 5월 여성의 활동별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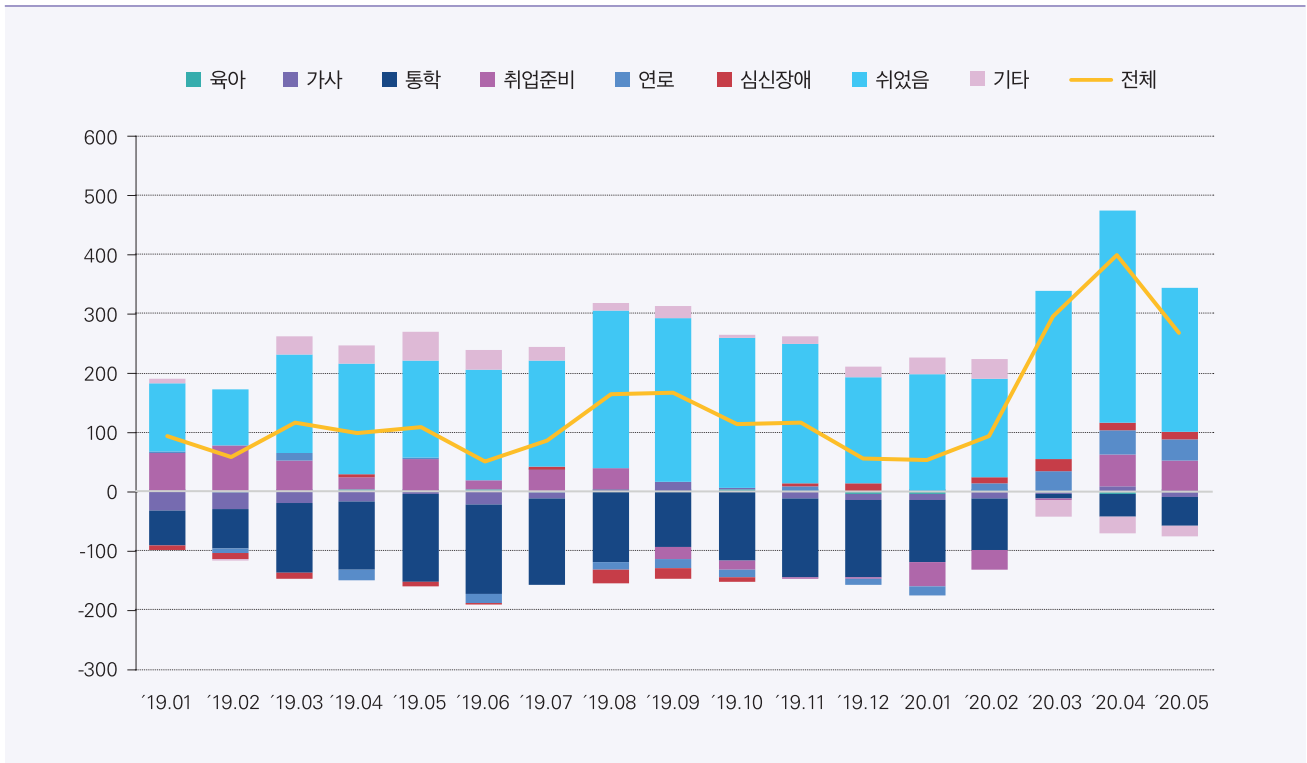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월



그림 3 `19년 1월~`20년 5월 남성의 활동별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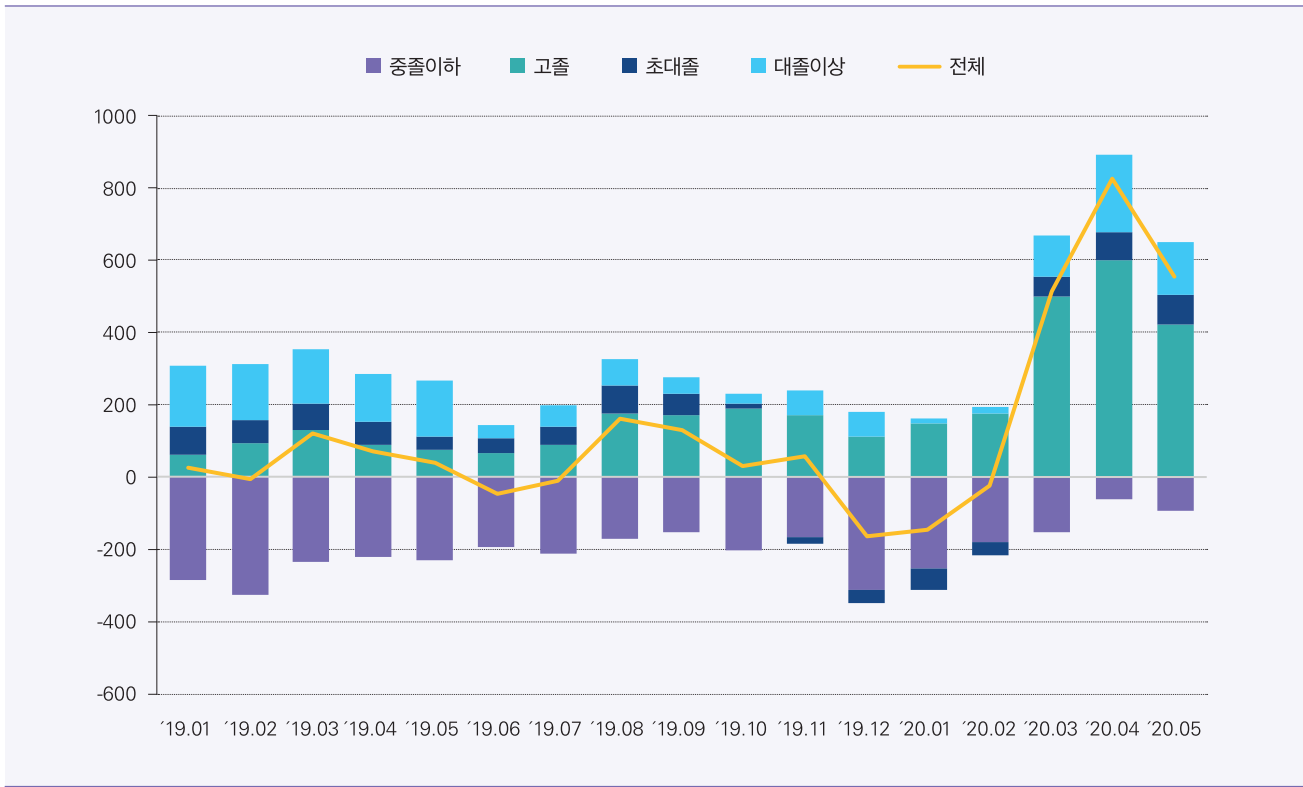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월

» 여성과 남성 모두 비경제활동인구가 유사한 폭으로 증가했으나, 여성의 경우 지난주 주된 활동을 '가사'로, 남성의 경우 '쉬었음'으로 응답함

- 특히 60세 이상 여성의 경우 증가분의 약 94.4%가 '가사'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오히려 '가사' 활동이 소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특징 또한 성별 직종 분리 현상과 유사하게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4 2019년 1월~2020년 5월 학력수준별 비경제활동인구 증감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월

» 학력수준별 비경제활동인구 전년대비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졸이하’를 제외하고 모든 학력수준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 중 ‘고졸’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남

-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 추세로 전환된 이후, 3월 18만 9천명, 4월 47만 5천명, 5월 22만 9천명으로 ‘고졸’의 증가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코로나19 확산 이후 실업자 현황

(단위:천 명,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19년 5월		`20년 3월		4월		5월	
		실업자 수	증감	실업자 수	증감	실업자 수	증감	실업자 수	증감
10대	여성	4	(-6)	13	(4)	7	(1)	4	(0)
	남성	12	(2)	11	(-4)	12	(-3)	9	(-3)
20대	여성	200	(-5)	171	(-27)	164	(-58)	187	(-13)
	남성	220	(-15)	208	(-44)	190	(-74)	225	(5)
30대	여성	81	(9)	83	(-14)	80	(-10)	90	(9)
	남성	133	(-10)	101	(-16)	115	(-26)	128	(-5)
40대	여성	62	(-6)	75	(16)	74	(15)	83	(22)
	남성	101	(7)	99	(-5)	107	(-2)	108	(7)
50대	여성	63	(-1)	83	(4)	99	(27)	106	(44)
	남성	109	(1)	128	(8)	134	(12)	139	(30)
60세 이상	여성	45	(14)	93	(48)	72	(24)	70	(25)
	남성	115	(34)	115	(12)	116	(20)	128	(13)
전체	여성	455	(6)	517	(31)	497	(-1)	541	(86)
	남성	690	(19)	662	(-48)	675	(-72)	737	(47)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월

» `20년 5월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이 전월 대비 감소한 반면, 실업자 수는 4월에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5월에는 증가 추세로 전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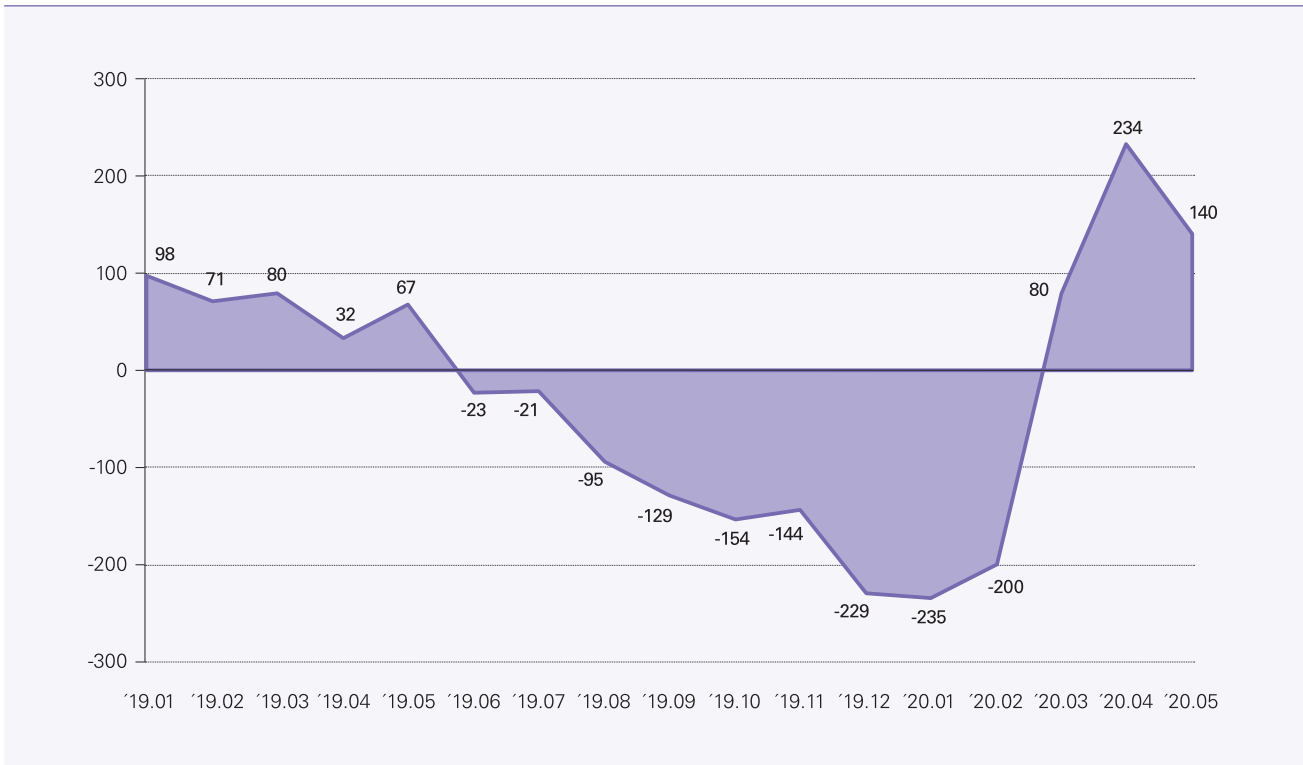
- 전체 실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3만 3천명 증가한 1,654만 8천명, 전체 취업자 수는 39만 2천명 감소한 2,693만명으로 파악됨

» 5월 증가한 실업자 수 중 가장 많은 연령계층은 20대로 전체 실업자 수 중 32.2%를 차지하며, 남성은 5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5월 전체 증가분 중 가장 많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계층은 50대(55.6%)이며, 여성이 64.7%를 차지함
- 실업자 수는 통상 남성의 비율이 높으나 이번 달 실업자 수 증가에 여성이 더 많이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2019년 1월~2020년 5월 잠재구직자의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 비경황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 혹은 실업자)로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잠재구직자<sup>1)</sup>’는 ‘19년 6월을 기점으로 전년동월대비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3월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됨

- 잠재구직자 또한 전체 비경황 인구와 같이 4월보다 5월 증가폭이 감소하여 일부 잠재구직자가 경황인구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음
- 2020년 5월 잠재구직자는 전년동월대비 14만명 증가하였으며, 이 중 50대, 60세 이상 고령층이 8만 5천명 증가하여 증가폭의 60.3%를 차지함
- 잠재구직자 수 증가분에서 ‘중졸이하’가 3월 1만 4천명, 4월 6만 5천명, 5월 7만 2천명 증가로,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됨

1) 잠재구직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를 의미함 (출처: 통계청, '2020년 5월 고용동향')

» `20년 5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폭 감소 추세와 실업자 수 증가 특징, 잠재구직자 증감 추세를 확인함으로써 비경활 인구가 구직자로 전환되는 양상을 확인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이 전월대비 감소하고 고용률이 1.3%p 감소했음에도 실업자 수가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물던 실직자들이 코로나19가 장기 국면에 접어든 후 구직 의지는 있으나 일자리 이동의 제한으로 인해 실업자로 편입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고용동향 브리프

2020

Vol.4

